

우리 나라에서 초기한문운문의 창작정형

김 희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문화적재부가 많습니다.》(《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13페이지)

중세초기 우리 나라에서는 글말생활에 한자를 리용하면서 한자로 씌여진 운문형태의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한문운문의 창작은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시기 문학유산을 통하여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한문운문작품은 처음 우리 말로 된 가요를 기록하는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여 생활을 개척하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겪은 체험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노래들을 지어불렀다.

이러한 노래들을 한자로 정리한것이 한문운문이였다.

고구려시기 문학유산에는 우선 인민대중의 집체창작으로 된 한문운문작품들이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있는 《피꼬리노래》(《황조가》)는 고구려전국초기에 나온 한문운문형태의 작품이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三國史記》卷十三 高句麗本紀 瑠璃明王 三年)

훨훨 나는 피꼬리도
암컷수컷이 의지하는데
나의 외로움 생각하니
그 누가 나와 함께 가랴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노래는 류리왕의 두 부인인 화희와 치희사이의 불

화를 생활적바탕으로 하여 왕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는 치희를 그리워하면서 왕이 부른것이라고 하였다.

노래에 체현된 정서는 그리운 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며 부부사이이지만 찢꼬리, 짐승만도 못한 자기들의 관계에 대한 한탄과 비판이다.

노래에 체현된 정서는 당시의 력사적환경에서 우리 인민이 겪어야 했던 생활감정의 진실한 반영이다. 작품에는 부역이나 혹은 병역으로 집을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부부간의 따뜻한 정을 간절하게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념원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피꼬리노래》는 한문운문의 초기형태인 4언고체시로 되어있다.

뜻글자이고 음절문자인 한자를 리용하여 운문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운률조성단위는 두음절문장이였다.

두음절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다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열되면서 시적운률을 조화시키는것이 한문운문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피꼬리노래》는 한문운문으로서의 운률조성의 특성을 충분히 구현하고있다.

피꼬리가 날으는 모양을 형상한 《翩翩》과 피꼬리를 가리키는 《黃鳥》는 두음절단어로서 시적운률을 조화롭게 하여준다.

《피꼬리노래》는 내용을 원만하게 전달하는데 기본을 두고 조사를 리용하였으며 그 소리값을 하나의 음절로 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의 운률을 조성하는데 적응시켰다. 《나의 외로움을 생각한다》는 내용을 《念我之獨》이라고 기록한 문장에서 《之》가 그런 경우이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에서 한문을 글말생

활에 리용하면서 우리 말의 정확한 표현에서 리두식표기를 하던 경험을 그대로 창작에 받아들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의 4언고체시형태의 작품으로는 《인삼노래》도 있다.

《인삼노래》는 원래 《인삼찬》(人蔘讚)이란 이름으로 전해오는 인민창작의 구전가요이다.

《인삼에 대한 찬양》의 뜻으로 제목을 단 《인삼노래》는 《잡찬》(雜讚)에 속하는 한문운문이다.

三椏五葉 北陽向陰
欲來求我 椏樹相尋
(《海東繹史》卷四十七《本國詩》一)
세개의 가지, 다섯개의 잎
양지를 등지고 음달을 향해라
나를 찾아 오려거든
가나무를 찾아보라

작품은 같은 형식의 작품인 《피꼬리노래》보다 높은 형상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인민창작의 구전가요를 한문운문형태로 기록한 《인삼노래》는 서정이 진실하고 형상이 생동하다. 작품에는 인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인삼채취과정에 터득한 풍부한 체험이 반영되어있다.

가요에서는 인삼의 가지는 세개이고 잎은 다섯개이며 빛을 싫어하여 양지를 등지고 가나무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인삼노래》는 인민가요로서의 특성에 맞게 알기 쉬운 말로 인삼을 노래하고있으며 4언고체시로서의 형태적특성을 살려서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대조와 대구를 명백히 하고 운률은 비교적 조화롭다.

《셋》과 《다섯》, 《가지》와 《잎》, 《양지》와 《음달》 그리고 《등지다》와 《향하다》와 같은 시어와 의미의 대조는 높은 시적형상을 보여준다.

《인삼노래》의 이러한 형상은 《피꼬리노래》보다 한문운문으로서 발전한 측면이라

고 말할수 있다.

고구려시기 문학유산에는 또한 개인창작의 한문운문작품들이 있다.

고구려에서 개인이 창작한 한문운문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7세기 경에야 나타났으며 그 형태는 4언고체시가 아니라 5언고체시이다.

개인창작의 한문운문은 내용에서도 반침략애국주의적인것과 고구려인민들의 강의한 의지, 정신력을 보여주는것 등 다양하다.

현재 전해지는 개인창작의 한자서정시 유산으로는 을지문덕의 5언고절 《적장 우중문에게》와 정법의 5언률시 《외로운 돌을 읊노라》가 있다.

을지문덕의 5언고절 《적장 우중문에게》는 612년 수나라침략군을 격멸한 《살수대첩》이 벌어지기 전야에 창작한것이다. 시의 사상주제적내용은 반침략애국주의이다.

적장에 대한 야유, 조소가 비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은 시어는 잔잔하고 유순하다. 이것은 마치도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三國史記》卷四十四《乙支文德》)
신기한 술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교는 지리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긴 공 이미 높은듯하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작품은 한문운문형태로서 매우 세련되었다. 2·3음절군을 가지고 시행의 운률을 보장하면서도 매개 시구에 쓰인 한자들의 성조도 일정하게 고려함으로써 시행전반이 음악적인 흐름새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음악적인 흐름새는 작품의 강한 서정성을 담보해준다.

개인창작의 한문운문으로서 정법의 5언률시 《외로운 돌을 읊노라》가 있다.

정법은 6세기 후반기에 고구려중으로서 후주로 가서 불교를 익혔는데 시를 잘 짓는것으로 한때 이름을 떨치였다.

迴石直生空 平湖四望通
巖隈恒灑浪 樹梢鎮搖風
偃流還淸影 侵霞更上紅
獨拔群峰外 孤秀白雲中
(《大東詩選》卷一 定法《詠孤石》)

높은 바위 곧바로 공중에 솟고
넓은 호수 사방에 통해있는데
바위밑은 언제나 물에 씻기고
나무가진 때없이 바람을 맞네
물에 비친 그림자 깨끗도 한데
노을 스민 붉은 빛 아름답구나
못산밖에 그 홀로 빼여났으니
흰구름 한가운데 외롭게 섰네

작품은 5언률시로 되었다. 5언률시는 한문정형운문으로서 5언률절 두편을 합쳐놓은것과 같다.

작품은 언제나 맑은 물에 씻기면서 붉은 노을속에 자기의 자태를 유난히 드러내 보이는 높은 바위를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의 깨끗하면서도 우아하고 역센 기상을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넓은 호수에 뿌리박고 하늘 높이 솟은 바위를 나무가지, 바람, 구름, 노을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인의 고상한 사상감과 높은 창작적기교와 함께 당시 고구려사람들의 정신세계, 지향과 리상을 보여주었다.

시 《외로운 돌을 읊노라》는 사물현상과 시인의 사상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를 시화하였다.

작품에서는 시적정서를 살리기 위하여 한문운문에서 리용하는 여러가지 형상수단들과 수법들을 다 리용하였다. 작품에서는 둘째 편과 셋째 편을 대구를 이루게 하였고 앞의 두편은 한문정형운문으로서의 운

률조성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뒤의 두 편은 한문정형운문의 운률조성방법을 리용하지 않음으로써 도식적이며 인위적인 운률구조를 피하고 작품의 내용을 살리였다. 즉 작품은 내용을 살리기 위하여 한문정형운문의 운률조성방법을 일부 변경시켰다.

우리 문인들은 4성에 의한 운률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6세기에 정법이 5언률시를 창작하면서 마감련들의 운률을 내용에 복종시키고 한문정형운문의 고유한 운률조성방법을 따르지 않은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한문운문의 창작은 다음으로 발해시기의 문학유산을 통하여 알수 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세워진 발해는 정치, 경제분야는 물론 문화분야에서도 고구려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켰다.

고구려에서 창작되기 시작하던 5언고시와 5언률시는 발해에서도 창작되었고 7언시도 나왔으며 특히는 장단구형식의 비교적 긴 운문이 창작되었다.

발해에서의 한문운문창작정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양태사와 왕효렴, 배정과 그의 아들 배구이다.

양태사는 756년 사신일행의 부사로 일본에 갔다가 귀국에 앞서 차린 연회석상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시를 지어 명성을 떨치였다.

그 대표작이 《밤에 다듬이질소리를 들으며》(夜聽擣衣詩)이다.

霜天月照夜河明 客子思歸別有情
厭坐長宵愁欲死 忽聞隣女搗衣聲
聲來斷續因風至 夜久星低無暫止
自從別國不相聞 今在他鄉聽相似
不知綵杵重將輕 不悉青砧平不平
遙憐體弱多香汗 預識更深勞玉腕

爲當欲救客衣單 爲復先愁閨閣寒
雖忘客儀難可問 不知遙意怨無端
寄異土兮無新識 想同心兮長歎息
此時獨自閨中聞 此夜誰知明眸縮
憶憶兮心已懸 重聞兮不可穿
卽將因夢尋聲去 只爲愁多不得眠
(《渤海國志長篇》卷十八《文徵》)

가을하늘 달이 밝고 은하수 선명하니
나그네의 고향생각 류달리 정겹구나
긴긴밤 앓았자니 시름겨워 죽을듯 한데
이웃녀인 다듬이소리 홀연히 들려오네

소리는 바람따라 끊어졌다 이어져서
밤 깊어 별은 저도 그칠줄 모르누나
고국땅 떠나온뒤 듣지 못한 저 소리를
오늘은 타향에서 유정하게 듣게 되네

다듬질하는 방치 무거운듯 가벼운듯
두드리는 다듬이돌 고르던가 아니던가
생각노라 연약한 몸 땀 많이 흘렸으리
알겠노라 깊은 밤 팔힘은 노곤하리

나그네의 홀웃차림 근심해서 하는건가
도장방 차거울가 걱정이 앞서누나
나그네의 차림이야 물을길 없다마는
그 마음 알지 못해 시름이 그지없네

이역땅에 부치리라 알아줄이 없건마는
같은 마음 생각노라 탄식이 잦아지니
이 시각 내스스로 안방소식 듣게 되나
이 한밤 그 누가 그대 고행 알아주리

생각노라 마음은 애달픈데
들었노라 그칠수 없는 소리
내 이제 꿈결에도 그 소리 찾으려나
시름에 쌓인 이 몸 잠들지 못하노라

24행에 12개 령으로 된 시는 장단구형
태로 이루어졌다.

운문전반이 비록 자연률에 기초하여 운

률을 조성하였으나 매우 조화롭다. 그리고
시작품에서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寄
異土兮》, 《想同心兮》, 《重聞兮》등 사(辭)의
시행조성방법을 리용하였으며 시어에서 형
상을 높이기 위하여 《땀》을 《香汗》이라 하
고 《눈》을 《明眸》, 《팔》을 《玉腕》으로 수
식하였다.

이처럼 시의 형상을 높이기 위하여 다
양한 문체론적수법들을 널리 적용한것은
한문운문의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달밝은 밤 조용히 들려오는 다듬이질소
리를 계기로 하여 창작한 작품에서는 이국
땅에서 고국과 사랑하는 처자를 그리워하
는 시인의 감정, 내면세계를 축적된 생활
체험에 기초하여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
주고있다.

9세기에 활동한 왕효렴도 일본에 사신
으로 가서 시적재능을 높이 과시하였다.

그의 시는 7언절구 4편과 5언률시 한편
이 전해진다.

7언절구인 시 《봄날에 내리는 비》(春日
對雨)는 다음과 같다.

主人開宴在邊廳 客醉如泥等上京
疑是雨師知聖意 甘滋茅潤灑霸情
(《渤海國志長篇》卷十八《文徵》)

주인은 결방에서 잔치를 베푸노니
나그네 흠뻑 취해 서울에 머무노라
비님도 그대의 뜻 각별히 알아선지
차분히 내리면서 이내 맘 달래누나

이러한 7언시는 고구려시기에는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문운문에서 7언절구는 5
언구의 앞에 두 음절 즉 두 글자를 더 넣
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7언절구는 압운과 평측에서 정연한 규
범을 적용하여 운률을 조화시켰다.

《봄날에 내리는 비》도 양태사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배정과 배구부자는 9세기 후반기 발해의 문인으로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가 한자시로 이름을 떨치였다.

7언절구와 장단구는 고구려에서 볼수 없었던 한문운문의 형태들로서 전반적인 한문운문의 운률구성과 형상적기교에서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한문운문의 창작은 이밖에도 백제, 신라시기의 문학유산들과 력사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다.

백제에서 창작된 한문운문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백제에서도 한문이 사용되였고 한자로 우리 말을 기록하는 독특한 서사형태인 리두를 사용하였다. 특히 《정읍사》와 같은 가요들이 창작되고 더구나 향찰로 기록된 《서동요》가 있었던것으로 보면 한문운문도 창작되었겠으나 전해지는 자료는 없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작품으로 비형랑(鼻荊郎)의 신기한 재주를 기록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지었다는 5언시 한편을 소개하였다.

聖帝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三國遺事》卷一 紀異《桃花女 鼻荊郎》)

가룩한 임금의 령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있던 방이 여기라오

날고 뛰여 쏘대는 못귀신들아

이곳에는 머물지 못할지라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글은 진지왕이 쫓겨난지 두해만에 도화녀의 남편이 죽고 그후 그에게 태기가 있어 비형랑을 낳았으며 비형랑이 15살에 집사벼슬을 하던 때의 사실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므로 대체로 597년경에 창작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정법이 시 《외로운 돌을 읊노라》를 창작하던 때보다 약간 늦은 시기이다.

그러나 내용은 주술적이고 사람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져있다.

한문운문으로서 5언시형식을 가지고 압운과 평측을 리용하였으나 전반적인 시적운률은 조화롭지 못하다. 그 단적인 실례가 《鼻荊郎室亭》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정리하여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